

아브라함이 얻은 것들

본문 : 창세기 21장 5-34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 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백 살이었습니다.
- ⁶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 ⁷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 ⁸ 이삭이 자라나 젖을 땔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 ⁹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 ¹⁰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 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 ¹¹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 ¹²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 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 ¹³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네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 ¹⁴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 ¹⁵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 ¹⁶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 ¹⁷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 18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
- 19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 20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 21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 22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 23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당신도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땅에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 24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 25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 26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이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 27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들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 28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 새끼 양양 일곱 마리도 내놓았습니다.
-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새끼 양양 일곱 마리를 따로 내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 30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양들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뜻으로 이 양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 31 이 두 사람이 그 곳에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 32 이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렸습니다.
- 34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2.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만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은 눈엣가시였습니다.
3. 사라의 몸종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주인 사라를 깔보아 괴롭게 했고, 사라는 그런 하갈을 못살게 굴어 결국 하갈이 집에서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봤습니다. 분노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마엘 또한 자신의 아들이니 아브라함은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식량과 물을 챙겨서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5.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식량과 물이 떨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갈의 통곡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을 쏘며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현재 아랍의 조상입니다.
6. 한편,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의 경고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후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시는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8.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지만, 이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성과 군대를 의지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9.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10. 아비멜렉이 성과 군대를 의지하듯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가장 믿고 의지할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보세요!

1. 이삭을 낳은 후 아브라함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2. 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으려고 할까요?
3.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